

1600세대 규모 선수촌 공사 마무리...7월 5일 개촌식

광주세계수영대회 준비 순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보도진 등이 머물 선수촌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기념주화도 발행되는 등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광산구 우산동 송정주공 아파트를 재건축 방식으로 건설한 선수촌이 완공돼 지난 1일 조합으로부터 인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대지면적 9만4131㎡, 전체 면적 23만3466㎡, 15~25층 25개 동에 1660세대 규모다. 대회 참가 선수와 임원 4000여명, 미디어 관계자 2000여명 등 모두 60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선수권대회가 끝난 후에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 출전 선수 6000여명도 선수촌에서 머물게 된다.

현재 선수촌 아파트는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시설물을 보호하는 보완재 마감 공사와 함께 외부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외부에는 국제구역, 선수구역, 미디어 구역으로 구분해 4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각종 편의시설과 경기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국제구역에는 국가광장을 비롯해 등록 인증센터, 종합상황실, 기자회견장, 경기정보센터,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신문제작실, 통신지원실,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실, 귀빈(VIP) 대기실, 경찰지원본부 등이 있다.

선수구역에는 식당, 기념품 판매장, 면세점, 의료센터, 도핑관리본부, 은행, 드라이클리닝, 피트니스센터, 전문안마실 등이 마련된다. 미디어 구역에는 프론트 오피스, 숙소운영사무실, 보안요원 대기실, 유

이낙연 총리 광주 방문 현장점검

한국은행 기념주화 1만장 발행

4성급 호텔 수준 편의·지원시설

내부 보완재·외부 부대시설 공사

니품 서비스센터, 통신 텔레콤, 편의점, 수송 안내데스크, 대변인실, 경찰특공대 대기실, 미디어 주차장 등이 갖춰진다.

이 밖에도 카페, 이·미용실, 꽃집, 탁구·당구·다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게임존,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 선수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선수촌 메인 레스토랑에서는 아시아식, 유럽식, 할랄식, 한식 등 각종 선수단의 입맛에 맞춘 음식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메디컬서비스 부문에서는 스포츠의학과, 내과, 응급의학과, 치과, 안과, 한방과 등 국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부대시설 공사를 오는 5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부대시설 공사가 끝나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7월 2일 사전 공개에 이어 5일 개촌식을 진행한다. 이후 6일 입촌식을 갖고 대회 개막 전날인 11일까지 각종 선수단이 선수촌에 입주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를 찾아 수영장과 수구경기장 등을 둘러보고 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국무총리실에서 앞장 서 입장권 단체 구매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경진 의원, 송갑석 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장병완 의원, 김동철 의원, 최경환 의원. <광주시 제공>

기념하기 위한 주화도 발행된다. 한국은행은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화 1만장을 발행한다. 기념주화는 액면금액이 3만원으로 은이 99.9% 함유된 프루프(proof)급 은화다. 크기는 32mm, 무게는 14g이다. 기념주화 앞면은 대회의 슬로건처럼 평화의 물결을 가르며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수영선수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뒷면은 슬로건인 'DIVE INTO PEACE'와 대회 로고를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2019. 4. 25.(목)

광주광역시

“간담회 일정도 못 받았다” 쏟아진 쓴소리 “당 떠나 소통 노력하겠다” 현안 협력 당부

광주시 국회서 정책간담회
평화당 의원들 불만 목소리
내년 국비확보 지원 당부
22건 3307억원 반영 건의

광주시의 내년 국고 예산과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이용섭 시장과 실·국장들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광주시가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에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광주 2019 정책간담회'에서 장병완 의원(동남 갑)은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유치와 관련,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문화산업진흥기법법 개정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북구 을)은 "명색이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인데, 시장은 물론이고 시장 간부 그 누구에게서도 오늘 간담회 일정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천정배·박주선 의원에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정을 잡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매년 국비를 3000억 원씩 쏟아 부어도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어려운데 지금 보면 해마다 700억 원 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북구 갑)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 사업이 진척이 안돼 시에 사업 현황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태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권은희 의원(광산 을)은 하남산업단지 정비사업과 관련, "약취 유발업체에 대한 민원이 많다. 사업 취지에 맞게 이들 업체의 이전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송갑석 의원은(서구 갑)은 "당을 떠나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역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나서서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를 새겨 듣고 더욱 노력하겠다. 실·국장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주시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해 역대 최대인 2조 2102억원의 국비확보에 초당적 협력으로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세특례

제법만 개정, 광주형 일자리 행·재정적 지원 등 지역 현안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국비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광주시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당면한 지역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수영대회 북한 참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5·18 40주년 기념사업 전국화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10건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중앙부처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지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등 22건 3307억원의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세계수영대회 외국인 법인·소득세 50억원 '고심'

조직위 예산 부족 반영 못해

평창올림픽처럼 면제 요청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참가 외국 법인과 개인의 법인세·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지만 관련 비용 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제 스포츠 경기의 경우, 개최국에서 법인·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면제해주는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예산이 부족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른 뒤 자칫 50여억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 된 광주시는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외국 법인·소득세를 감면·면제해 줄 것을 국회 등에 요청하고 있다.

25일 광주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조세특례제한법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제 대회 외국인 법인·소득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열린 대회를 통해 벌어들인 돈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현재 조직위는 FINA와 각종 수영연맹 등 외국법인이 개최권료와 방송신호제작비, 후원업체 물품지원 등을 통해 벌어들인 444억원이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른 법인세는 19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외국 법인의 위원과 임직원, 선수, 감독, 심판, 코치, 운영위원 등이 대회 상급, 항공료, 심판수당 등 135억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소득세 29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NA 규정에 따라 이들 외국인을 대신

해 조직위가 법인·소득세 50여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조직위는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영대회 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조직위 관계자는 "세금을 부담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대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나해 평창동계올림픽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 특례를 적용했던 것처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수영대회에서 외국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 2019년 8~10월 준공예정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